

# 담양군 추월산~금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타당성 검토 1차 용역 보고회 4.2km 구간 사업비 472억 추산 환경·문화재 훼손 우려 목소리



상공에서 내려다 본 담양호 전경. 담양군은 담양호를 사이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담양군이 '10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담양호를 사이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한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호 관광지 내 추월산자구에 케이블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 1차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와 산악형·해양형·혼합형 등 타 지역 케이블카 운영 사례 연구, 최적 노선과 기간,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담양호-추월산 케이블카는 총연장 4.2km로, 1구간은 추월산 주차장~정상 1.3km, 2구간은 추월산 정상~금성산까지 2.9

km다. 사업비는 472억8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담양호의 잔잔한 아름다움과 일출·일몰

로 유명한 추월산의 비경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어 연간 최대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흑자를 내고 있고 지역 내 여수 해양케이블카와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다.

담양호 일대에 수상 레저와 숙박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지정된 담양 금성산성 등 문화재와 산림, 호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림돌이라는 분석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현상 변경 등 까다로운 심의를 줄줄이 통과해야 하고, 환경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군은 담양호 경관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1, 2구간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 수익과 보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gg@kwangju.co.kr



지난 23일 장성읍 가산리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사계절 내내 테니스와 정구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갖춘 돔 경기장이 문을 열고 기공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 국제규격 테니스·정구 돔 경기장 개장

장성군에 사계절 내내 테니스·정구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갖춘 돔 경기장이 문을 열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성읍 가산리 문화시설사업소내에서 테니스·정구 돔 경기장 준공식을 가졌다. 돔 경기장은 관람석 165개, 국제규격에 맞는 가로 24m·세로 11m 코트 5면을 갖추고 있다. 코트 위로는 막구조 형식의 지붕을 설치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그동안 많은 동호인들이 날씨 때문에 경기를 치르는 데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 돔 경기장 준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돔 경기장은 장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테니스·정구 동호인들에게도 개방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는 일반에 무료로 개방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

### 담양군 선도 자치단체 선정

담양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자치 확대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시·군·구를 발굴해 주민자치 분야(14)와 보건복지 분야(16) 등 총 3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담양군이 선도 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담양군은 민선 6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온 점과 지난해 제정된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 등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소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도 받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체험학습장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조성에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gg@kwangju.co.kr



무더위 잇는 해바라기길 산책

화순군 남면 남계리 자연생태학습장에 조성된 해바라기 길에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해바라기 심만송이를 심고 가졌다. <화순군 제공>

## 장성 군립중앙도서관 대변신...개관 13년만에 대대적 리모델링

2005년 개관해 13년간 장성군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 역할을 해 온 장성 군립중앙도서관이 대대적인 변신에 들어간다.

장성군은 시설이 노후되고 도서 비치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중앙도서관 내부 공간을 이용객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대규모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1층은 어린이도서관 전용 공간으로 바뀐다.

이곳에는 별집모양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독서 공간을 만들고 놀이개념을 접목한 유아코너와 동화방 등이 들어서 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된다.

2층은 종합자료실과 문학실이, 3층은 문

화고실과 각종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꾸며진다.

2층에 있는 사무실도 1층으로 옮겨 방문객들에게 발 빠른 안내와 신속한 도서 대출·열람이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사 기간에도 도서 대출 서비스는 계속 진행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화순군 농기센터 클로렐라 대량배양기 설치

화순군은 최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실내에 500L 규모의 최신식 클로렐라 대량배양기(사진)를 설치하고 시험배양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용 클로렐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담수 미세 조류로서 식물과 같이 이산화탄소와 물, 빛을 이용해 직접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클로렐라는 작물생육 촉진, 저장성 및 당도 향상, 병해충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클로렐라 배양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농업인 50명을 모집해 클로렐라를 시범공급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클로렐라는 안정성이 확보된 기능성 식품소재로 점진적으로 농가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산



물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용 클로렐라 신청 및 사용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061-379-5412)으로 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28~29일 화순 복숭아 품평회·문화축제

화순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화순복숭아연합회영농조합법인(대표 박민자) 주관으로 제10회 화순군 복숭아 품평회와 화순 명품 복숭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째날인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기념식과 품종별 시식회, 명품 복숭아 선정을 위한 품평회가 진행된다.

둘째날 오후 1시부터는 복숭아 판매 영농조합원 소개와 함께 복숭아 직거래 판매장터를 운영한다.

행사기간 복숭아 빨리 먹기 대회와 복숭아 씨 멀리 뿜기 또는 받기, 복숭아 1000원 경매, 복숭아 무게 알아맞히기, 복숭아 열을 위 오래서있기 대회, 즉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이 열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투자자모집

▶법원경매 진행/낙찰물건의  
기타 부동산

▶1억원 투자시 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

▶근저당 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투자금 1억원 이상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